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밀그림 그린다'

### 정현을 익산시장, 네덜란드·이탈리아 방문 논의 지역 농업 연계한 생산-가공-판매 시스템도 검토

정현을 익산시장이 세계 식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현지를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위한 밀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선진 식품클러스터들의 R&D기능 강화와 네트워크 협력, 지역 농업과 연계한 생산-가공-판매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 아시아 식품수도를 완성해 내겠다는 방향성도 논의했다.

플란드에서 세계유산도시 세계총회에 참석해 익산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린 정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2단계 추진을 위한 밀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로 이동했다.

네덜란드를 찾은 정 시장과 조규대 의장을 포함한 방문단은 첫날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체험테마파크인 월드푸드센터 조성지와 푸드밸리 인근을 돌아보고 푸드밸리 사무국을 공식 방문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에 위치한 푸드밸리는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결합한 세계

식품클러스터의 선두로 자리 잡고 있다.

푸드밸리 현황을 청취한 정 시장은 "푸드밸리의 핵심은 농식품 지식의 허브로 네트워크 기반의 식품산업 지식과 코디네이션 지원에 있다"며 "현재 2600여개의 회원사와 전 세계 8000여명의 연구자들(70개 연구회사, 20 연구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발히 펼치는 R&D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교육·가치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 1위의 농생명 대학인 와게닝겐대학 연구센터(WUR)를 견학했다.

이 대학은 1만200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농업과 식품과학, 환경과학, 사회과학, 로보틱스 등 융복합 협업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둘째 날에는 송아지고기 가공분야 매출기준 세계 1위로 유럽시장 30%를 점유하는 기업을 방문해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와 함께 기술 지원 협력관계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 의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기업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검역역 심사 등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정현을 익산시장이 세계 식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현지를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위한 밀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도 흥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날은 이탈리아에서 에밀리아아로마냐 클러스터와 FICO 농식품 테마파크를 방문해 선진시설 및 네트워크를 유심히 살폈다.

이탈리아 에밀리아아로마냐 클러스터는 지역 특산물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이며 볼로냐에 위치한 FICO 농식품 테마파크는 이탈리아 농식품 산업 및 음식문화에 대한 생산, 가공 관점에서 체험까지 이루어지는 2만㎡ 규모의 테마파크이다.

정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도약과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선진 식품클러스터 방문을 통해 2단계 사업 추진을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R&D기능 강화와 네트워크 협력, 지역 농업과 연계한 생산-가공-판매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수도의 신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 기초수급 탈락자 생계급여 지원

### 익산시, 10일부터 접수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매월 생계비가 지원된다.

익산시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인 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개월 이상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와 병행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합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부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252만원)보다 완화해 적용하고(1인 가구 273만원, 가구당 재산 3억 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복지 제도로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중소도시 재산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해 소득 인정액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합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 익산시 '일손 바쁜 농번기' 지원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12명 파견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일손이 모자란 농번기 기간 동안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먼저 익산시는 여성 농업인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마을 주민 간 공동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난 해보다 6880만원이 늘어난 1억4080만원을 투입한다.

기존 30개 마을에서 44개 마을로 14개 마을을 추가했고 참여 인원에 비해 다소 낮게 책정됐던 부식비 지원

기준도 마을 당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인 가족을 포함해 20인 이상 참여하는 마을이며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조리원이 1명씩 배정돼 바쁜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도 지원된다. 단기 취업비자로 중국 집안사에서 12명의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들은 오는 7월 26일까지 6개 농가에 파견돼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현장 방문

군산시는 최근 북한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7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군산시 양돈농가 중 출입국관

리사무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신고하고 고용한 농가는 4개 농가이며 네팔 4명, 베트남 2명 총 6명의 외국 인근로자가 양돈농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담당자가 매월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국가별 홍보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수칙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자연재해 재난 대비 행정력 집중

### 11억3천만원 예산 들여 폭염 저감 시설 확충 운영

### 쿨링포그 시스템·횡단보도 30여곳 그늘막 설치 등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여름철 폭염 및 호우 등 자연재난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2019 여름철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 사전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어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 기간 ▲폭염 대응체계 확립 ▲저감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대책 확대 ▲피해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거리생활 노숙인들을 위한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시는 11억3천만원에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 운영해 예술의 전당 앞 광장, 수송동 은행나무 사거리, 군산대 앞 등에 쿨링포그 3개소를 흥남동 주민센터 앞 그린터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미세한 물 입자를 특수 제작된 노즐을 통해 분사함으로써 주변 온도를 3~5도 가량 낮추고, 공기 중 먼지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또 시민들이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일원의 횡단보도 등 30여곳에 그늘막 설치하고 일부 시설에는 친환경 녹색커튼 조성 및 벽면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시원한 여름을 선사하기 위해 군

산 관광지도를 인쇄한 쿨타월 및 휴대용 선풍기를 제작해 보급하고 고위험 취약계층에게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여름이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농축산 분야의 경우 발작물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폭염 대비 가축사양 관리요령 및 예방활동 홍보를 실시한다.

호우 종합대책으로는 지하수가 침수 예방 점검, 우수시설물 점검 및 보수, 옥외광고물, 대형공사장 사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부서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 15일까지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난별 대응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해 발견된 위험요소 중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군산시, 10월부터 단속

군산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전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속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초기로 전라북도 조례 발효에 맞추어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3개월간의 제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단속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